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5호

체육인대회 열어 세몰이까지...

문체부와 싸우는 대한체육회 회장... 왜?

스포츠저널리즘연구회

[동계청소년올림픽]

김현겸, 한국 피겨 역사상 청소년올림픽 첫 金...신지아도 메달권 진입

맹봉주 스포티비뉴스 기자

학교 운동부 10년 새 26% 감소

매주 3개씩 학교 운동부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운동도 기피

박은경 한국일보 기자

특수폭행 혐의 입건

전 야구선수 정수근이 또...술 취해 골프채로 아내 폭행

지정용 티비조선뉴스 기자

여자프로테니스(WTA)

나브라틸로바에버트, 여자프로테니스 파이널 사우디 개최 반대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男 부문 462위→女 부문 1위로 논란 빚었던 리아 토마스

"나도 출전할래"...美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세계수영연맹 상대로 소송사 모아보기

정지윤 뉴스기자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문체부와 싸우는 대한체육회 회장.. 왜?

토론 참가자: 장익영 한국체대 교수, 오태규 서울대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전 한겨레신문 체육부장), 김완태 전 프로농구 엘지 단장, 사회 김창금 한겨레 기자.

지금은 거꾸로 체육회 회장이 정치를 역이용하고 있다

사회자: 최근 체육계 이슈는 단연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의 노골적인 반 문체부 강경 대응이다. 이기흥 회장의 행보는 그야말로 광폭이다. 지난해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지만, 참가하지도 않은 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주요 일간지에 체육단체 연명으로 성명서도 게재했다. 스위스 로잔에 체육회 국제협력사무소 설치 문제를 두고 문체부와 대립했다가, 결국 자신의 뜻대로 관철하기도 했다. 1월 16일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는 '2024 체육인대회'를 열어 세몰이를 했다. 문체부가 "산적인 문제나 풀라"며 반박하자, 발끈해서 성명까지 내며 확전을 마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체육계의 많은 이들은 이기흥 회장과 문체부의 대결 양상에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질주의 위험성 때문에 걱정하기도 한다.

장익영 교수: 이기흥 회장과 문체부의 대립은 공교롭게도 과거 소수 대의원 투표가 아닌 다수의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회장이 선출되는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민선 체육회장이 권력화하면서 부득이하게 대립이 발생한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나쁜 것도 아니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라는 거버넌스의 문제도 걸려 있다. 다만 이기흥 회장의 행보가 체육회장 3선 전략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 중 하나는 예산이다. 체육회 예산은 문체부를 통해 내려오는데, 수직적 관료적 측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지원하니 관리·감독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전문·생활 체육을 운영하고 올림픽 대회 등에 선수단을 보내는 실질적인 주무기관인 대한체육회는 자율성을 강조한다.

대한체육회와 국가올림픽위원회를 현행대로 통합한 형태로 두느냐, 분리하느냐의 문제도 두 기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싸움은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결국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효율성, 책임성, 자율성 등의 의제를 체육회와 문체부 두 기관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루려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할 것 같다. 자정 능력이 부족하니 통제하겠다거나(문체부), 자율을 주장하면서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체육회) 식으로 간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한국 체육'이다.

오태규 연구원: 정부와 정부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사이에 갈등과 알력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사태는 '불건전한 갈등과 알력'이다. 그동안 한국 체육의 역사를 보면, 정치 권력의 힘이 체육단체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정치는 각종 자원과 권력으로 체육계를 지지세력으로 활용·악용해 온 역사가 있다. 수평적이지 않고 건전하지도 않은 관계였다.

지금은 거꾸로 체육회 회장이 정치를 역이용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4월 선거라는 국면도 있는데, 체육회의 성명서 정치를 보면 매우 강경한 어조로 돼 있다. 이전과는 다른 매우 특수한 상황이다. 어떤 면에서는 (체육회장 3선) 욕심을 많이 내는 회장이 체육회를 사유화 해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싸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정부 입장에서 '내가 95% 지원하는데, 나에게 대들어'라는 관성적 생각을 할 수 있다.

불건전한 갈등과 알력의 해법으로 체육계의 민주화, 자주화, 자생적 재정 독립 노력 등을 제안하고 싶다. 정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체육계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김완태 단장: 한국의 스포츠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체육이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끌기도 한다. 한국 스포츠 단체 역시 시대의 흐름이나 이동을 알아채고 거기에 맞물려서 가야한다. 가령 정보통신 기술의 변화를 스포츠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음 장 계속

현재 진행되는 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을 보면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든다. 체육회 내부 조직이 경기나 경기인 중심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e스포츠도 부상하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체육회는 80~90살 분들이 포함된 원로회를 최근 구성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세상의 흐름에 적응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지식도 부족하다. 너무 엘리트 중심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포츠 산업적인 관점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올림픽 금메달 몇 개를 획득했느냐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체육회가 주도한 해병대 훈련도 마찬가지다. 기업에 재직했을 때 이런 행사를 경험했는데, 당시에 의구심을 품은 적이 있다. 그땐 오래전이었다. 지금은 스포츠 과학 등을 통해서 해야 한다. 체육회가 문체부와 대립하는 것이 특정인의 정치화, 권력화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통합은 되겠지만 현 상태로 통합할 수는 없다. 전문가 집단의 공론화, 공개토론이 필요하다.

체육인 목소리는 없고, 체육회 기득권이 문체부와 아웅다웅

사회자: 이기흥 체육회장의 개인기보다는, 체육회 역량 등 구조적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저도 1월 16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2024 체육인대회 현장에 있었는데, 많은 체육인들이 동원됐다는 인상을 받았다. 야외에서는 추운 날씨 탓에 임시 난방시설이 꽤 많이 가동됐는데, 청소년부터 성인들까지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체육회장의 연설에는 관심이 없었다. 외형적 세몰이보다는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장익영: 체육의 민주화 자주화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가장 부족한 부분을 자주화 문제로 본다. 그동안 체육은 너무 종속적이었고, 정치 수단화됐다. 체육인들이 세를 과시할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 각 영역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듯이 체육계도 내부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 체육회를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체육 부문의 '정책통'이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는 왜 전문가를 키우지 못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이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데, 만약 역량있는 체육인들이 많고, 내부 민주주의를 통해 그들의 쓴소리가 나왔다면 싸움의 수준이 달라졌을 것 같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대응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태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권력이 조심스러워하지만, 한순간에 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체육회를 사유화한 수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풀뿌리에서 나오는 체육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체육회와 문체부 사이에 성명서와 반박 글이 나오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은 그들만의 싸움이다. 체육계가 진짜 힘을 갖추려면 내부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또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공개 토론, 전문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미디어도 병렬식 보도로 한쪽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사회자: 제가 볼 때는 이기흥 회장과 문체부의 대립은 감정싸움까지 치달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도 내부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이기흥 회장은 문체부가 체육인대회를 비판하자, 다음날 반박 성명을 냈는데, 성명 내용을 읽어보면 매우 민감한 부분이 나온다. (용산의) 고위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대규모 행사를 했고, 정부기관인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에 전달한 것도 미리 공유됐던 행사라고 썼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 비서실 입장은 정반대였다. 체육회나 대통령실 양쪽 가운데 한쪽은 거짓말을 한 꼴이다. 다른 한편 정부의 조정기능이나 중재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이기흥 회장의 독주를 더 자극하는 것 같다.

장익영: 지금의 상황은 국가와 기타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국민을 상대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등에 업어야 한다. 이기흥 회장은 정치적 국면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 같다. 반면 민간기구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이뤄야 하는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 안되는 것 같다. 정부 기구인 문체부를 감사하라는 체육회의 청구서를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이 접수하고, 대통령 비서실의 실무 당국자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오태규: 본질적인 것은 체육인들의 목소리는 없고, 체육회 상층부나 기득권이 문체부와 아웅다웅하는 것이라고 본다. 전체가 공감하는 대립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이나 야망에 복무하는 갈등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배우 이선균의 불행한 사망에 대해 영화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모여 부당한 수사 관행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와 문체부의 대립에서도 진정성 있는 체육인들의 목소리는 없다. 그런 까닭에 권력지향적 체육회장의 행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과 달리 사익 추구처럼 보인다. 무조건 정부와 맞서면서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그 싸움은 박수를 받을 수 없다.

김완태: 결국 체육회의 내부 역량 강화와 민주화로 귀결되는 것 같다.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고, 체육 발전의 보편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체육을 사적 이익의 추구나 정치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

사회자: 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 상황은 한국 체육의 발전이라는 지상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대중에게 설득할 때 정당성을 얻을 것 같다. 또 체육회와 문체부 모두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위상과 역할 정립을 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체육계가 목소리를 내려면 일인의 독주가 아니라, 내부 민주화와 역량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기본 전제다. 이상으로 장시간 토론을 마치겠다.

김현겸, 한국 피겨 역사상 청소년올림픽 첫 金... 신지아도 메달권 진입

시상대 맨 위에 섰다.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첫 발자국이다.

김현겸이 29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 점수(TES) 77.29점, 예술 점수(PCS) 70.16점으로 합계 147.45점을 받았다. 총점 216.73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위 아담 하가(216.23점, 슬로바키아)를 단 0.50점 차로 제치고 거둔 우승이다.

2012년 시작한 동계청소년올림픽 피겨스케이팅에서 한국 남자 선수가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니어 올림픽을 통틀어서도 마찬가지.

김현겸은 이번 대회 한국의 5번째 금메달 주인공이 됐다. 그동안 쇼트트랙 남자 1,500m 주재희, 봅슬레이 남자 모노봅(1인승) 소재환, 스노보드 남자 슬로프스타일 이채운,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듀얼 모굴 이운승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기에 김현겸까지 더해졌다. 지금까지 한국은 금메달 5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로 종합순위 6위로 올라갔다.

이날 김현겸은 첫 연기 과제이자 고난도 점프 기술인 쿼드러플 토루프 점프를 비롯해 모든 연기 과제를 큰 실수 없이 해냈다. 코레오 시퀀스에 이어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ин(레벨4)과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ин(레벨4)으로 연기를 마무리했다. 김현겸 스스로도 연기가 끝나고 두 주먹을 불끈 쥐 정도로 만족스러웠다.

3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피겨 여자 싱글에선 기대주 신지아가 메달을 노린다. 신지아는 쇼트프로그램에서 시마다 마오(71.05점), 다카기 요(67.23점·이상 일본)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신지아는 김연아 이후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 가장 높은 한국 여자 피겨 스케이팅의 '차세대 에이스'로 꼽힌다. 지난해 처음 출전했던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기 직전 참가했던 제78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도 우승했다. 지난해에 이어 종합선수권대회 2회 연속 정상에 오르며 이번 대회 메달 획득의 자신감을 얻었다.

매주 3개씩 학교 운동부가 사라진다... 학령인구 감소에 운동도 기피

“아이를 많이 낳을 때야 한 명은 공부시키고, 한 명은 운동시키고 했죠. 요즘은 안 그래요.”

(울산교육청 체육예술교육팀 관계자)

천하장사 김진·윤정수, 한라장사 김용대 등 걸출한 선수들을 배출한 인천 부개초등학교는 올해 씨름부를 해체했다. 몇 년째 신입부원이 들어오지 않은 데다 마지막 남아 있던 선수 2명도 2022년 말 졸업하면서 지난해에는 씨름부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다. 1983년 창단 후 40년 만이다. 고정호 부개초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교육청 교기(校技) 지정 취소 등 공식 절차가 남아 있다”면서도 “씨름 인기가 시들하고 신입부원 모집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더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전문 운동부를 꺼리는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학교 운동부가 사라지고 있다. 초중고에서 대학, 실업팀, 프로팀으로 이어지는 체육 생태계의 도미노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 운동부 육성학교 수는 2012년 5,281개교에서 2022년 3,890개교로 10년 사이 26% 감소했다. 매주 2~3개 팀이 해체된 셈이다. 학생선수도 2021년까지는 5만9,000여 명을 유지하다 2022년 5만3,000명, 2023년 4만6,000명으로 떨어졌다. 단순 계산하면 한 학교당 선수는 10명이 채 안 된다. 야구나 축구 등 단체종목은 물론이고 개인종목조차 최소 운영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수도룩하다.

프로야구 롯데 박정태·마해영 등의 모교로 유명한 부산 대연초 야구부는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해 결국 해체됐고, 신연호 고종수 등 국가대표를 키운 전남 여수 구봉중 축구부도 같은 해 명맥이 끊겼다. 울산에선 최근 1년 동안 수영, 테니스, 복싱, 역도 등 개인종목에서만 8개 팀이 사라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울산의 초등학교 학부모는 “수영선수를 희망하는 딸을 위해 수영부가 있는 학교를 찾아 한 학기에만 두 번이나 전학을 했다”며 “재능이 있어도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니 운동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운동부 해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토로했다.

운동부 해체는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데 있다. 2019년 스포츠계 인권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발족한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비율이 4.2%인데 비해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감소 비율은 9.1%로 2배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체육이 무너지면 한국스포츠 경쟁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우리나라 엘리트체육 육성 시스템의 근간은 학교 운동부”라며 “기본적으로 체육수업을 활성화하고, 운동부가 있는 학교엔 인센티브를 주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야구선수 정수근이 또... 술 취해 골프채로 아내 폭행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의 폭행한 혐의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씨(47)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쯤 자택에서 술에 취해 골프채로 아내 A씨의 이마를 1회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애초 남편의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과정에 골프채가 사용된 점, 피해자 이마에 찰과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나브라틸로바 에버트, 여자프로테니스 파이널 사우디 개최 반대

'테니스 전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와 크리스 에버트(이상 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시즌 최종전의 사우디아라비아 개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브라틸로바와 에버트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신문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을 통해 "WTA 투어 시즌 최종전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은 여자 테니스와 WTA 투어의 정신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WTA 투어는 올해 11월 초 시즌 최종전 WTA 파이널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한 시즌 상위 랭커들만 모여 치르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로 2023년에는 멕시코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 개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개최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나브라틸로바와 에버트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인권 문제가 있고, 성소수자를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며 "특히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문제점이 장기간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온 나라"라고 지적했다.

나브라틸로바와 에버트는 나란히 메이저 대회 여자 단식에서 18번씩 우승한 '테니스 전설'들이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TA 파이널을 여는 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의미한다"며 "개최지 결정 이전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하고, 인권 전문가가 선수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고 WTA 투어에 요구했다.

일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포츠 대회를 여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나브라틸로바와 에버트는 "이런 곳에서 대회를 여는 것은 여성 스포츠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중대한 후퇴를 의미한다"며 "이런 상황이 앞으로 5년 내에는 바뀌기를 바라고, 그런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대회 개최를 지지할 것"이라고 변화가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는 이미 지난해 말 21세 이하 상위 랭커들이 출전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했고,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 등은 지난해 12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이벤트 대회에 참가했다.

또 라파엘 나달(스페인) 역시 이달 초 사우디아라비아 테니스협회와 홍보대사를 맡기로 한 바 있다.

"나도 출전할래" ... 美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세계수영연맹 상대로 소송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달라며 세계 수영 연맹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소속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가 세계 수영 연맹의 성별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토마스는 지난해 9월부터 캐나다 로펌을 고용해 CAS에 소송을 제기했다. CAS는 "토마스는 이 규정이 올림픽 헌장이나 세계수영연맹 규정, 유럽 인권 협약 등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에 반해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심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리아 토마스는 수술을 하지 않은 비수술 트랜스젠더로, 호르몬 치료를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2022년 3월 개최된 여자 자유형 500야드 부문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남성 부문에서 462위를 하던 토마스가 여성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자 불공정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2022년 6월부터 세계수영연맹의 새로운 성별 정책이 발효돼 토마스의 출전 기회는 사라졌다. 이 정책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선수의 경우 12세 이전, 혹은 사춘기 발달 2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성전환한 경우에만 여자 부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계 내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지지 단체인 애슬리트 얼라이(Athlete Ally)의 책임자 대니 다이아몬드는 "세계수영연맹의 트랜스젠더 정책은 사회와 스포츠계에서 폭력, 학대,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며 "사실상 모든 트랜스 여성 선수를 국제 수준 스포츠에서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성정체성 선수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자, 세계수영연맹은 출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해 새로운 부문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수영 월드컵 대회에서는 '모든 성별과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들을 위한 부문을 신설하기도 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보조금 12억 횡령 김천체육회 직원 구속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5645&ref=A>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이 돌아오른다...한국팀 개막전 상대 확정, 티켓 예매 돌입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94935?ref=naver>

北체육상 중국 방문...체육분야 협력방안 논의할듯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8004700504?input=1195m>

'가자 파리로' 대한장애인체육회, 2024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

<https://www.news1.kr/articles/5302090>

포항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짓는다...2025년 완공

<https://www.yna.co.kr/view/AKR20240130062200053?input=1195m>

유인촌 "엘리트 체육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울수도"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2910235720794>

'동두천 체육인 뭉쳤다'...국제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열기 '후끈'

<https://www.moneys.co.kr/article/2024012912285356485>

[경기도의회 소식] "장애인 체육활동, 자존감·정체성에 도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2912531971372?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